

마음 열기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빼고)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15장 21-28절, “끝까지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했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랐거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왔다면, 예수님의 반응에 실망하여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데에는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만 힘들거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소리지르는 여인을 보내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은 드디어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24절). 이는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에게에는 판단할 여유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기에,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무조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분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모습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절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며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26절). 이에 여인은 굴하지 않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27절).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얻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28절).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겉모습,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죽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 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다면, 이에 쉽게 넘어지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판단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에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영적 생명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되돌아 봅시다.
2. 예수님이 나와 상관 없는 분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3.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2.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때와 뜻을 판단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이블로 묶어보기 - [3월: 민, 단, 미, 고, 엡]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진리를 외쳤던 미가,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발견해 봅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까지 함께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광야 길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도 뜻을 정하여 거룩함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바울은, 분열과 갈등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반성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是我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는 명령은 오늘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이 책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거룩[구별됨]"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고, 다니엘과 미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며, 고린도전후서와 에베소서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자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며, 신승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FAMILY 나눔

2026년 3월 1일

끝까지 따르라

마태복음 15장 21-28절

